

#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5일(목요일) 저녁 18시30분,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6명) - 박미현, 박정수, 장혜인, 김은주, 오유미, 장현수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마혜란, 백윤미

의사일정

1. 제5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소개 및 인사나누기
2. 제5기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3. 2018학년도 유치원안전계획 검토 및 자문
4. 2018학년도 예산서 자문

○ 간사: 지금부터 제5기 1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원장: 바쁘신 중에 5기 학부모위원으로 등록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1.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소개 및 인사나누기>**

○ 간사: 5기 신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에 대해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원위원이셨던 봉성화선생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백윤미선생님께서 교원위원으로 단독출마, 이의 제기가 없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5기에는 기존에 직을 맡고 계신 학부모위원님 3분이 계십니다. 4기 부위원장님이셨던 박정수위원님, 급식소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박미현위원님, 예/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장혜인위원님 이십니다.

○ 4기 위원들: 안녕하십니까?

○ 간사: 다음으로 신규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은 총 3분이십니다. 3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이견이 없어 정족수와 같아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유아연령별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3세 빛반 이은지어머니이신 오유미위원님, 4세 슬기반 이승윤어머니이신 김은주위원님, 5세 온유반 박시연어머니이신 장현수님이십니다.

○ 신규위원들: 안녕하십니까?

○ 원장 : 이렇게 유치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신규위원 개별로 당선통지서 배부**

**<의사 2.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 간사 : 이번에는 5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출마하실 학부모위원은 안 계신지요? 추천하셔도 됩니다. **\*투표용지 제시.**

- ○○○위원: 지난 4기 때도 그렇고, 좀 적극적이시고, 카페활동도 하실 수 있는 위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과 소통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요.
- ○○○위원: 신규위원들은 운영위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니, 이전 4기 위원님들 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자진 출마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그럼 뽑혀도 절대 할 수 없으신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 ○○○위원: 저는 빼 주세요. 못 할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저도 제외해 주세요.

**\* 학부모위원 중 아무도 자진출마 안함.**

- 간사 : 그럼, 아무도 자진 출마의사가 없으니, 두 분을 제외하고 투표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 전체 : 네. 동의합니다.
- 간사 : 위원회 구성의 효율을 위해 투표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위원이 위원장, 그 다음으로 득표하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체 : 네. 동의합니다.

**\* 무기명 투표로 진행: 결과 박미현위원 7표, 장혜인위원 3표**

**박미현위원 5기 위원장, 장혜인위원 5기 부위원장으로 선출**

- 간사 : 그럼, 이번에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급식과 예/결산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위원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저는 급식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저도 급식을 할게요.
- 간사: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예/결산을 맡으셔야 하는 데 괜찮으신지요?
- 위원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정해주세요.
- 간사: 교원위원님들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기존에 마혜란위원은 급식소위원회 간사였습니다. 혹시 변동 있으신가요?
- ○○○위원: 아니요.
- 간사: 그럼 백윤미위원은 예/결산소위원회 간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 ○○○위원: 네.

**\* 소위원회 구성결과 - 급식소위원회: 위원장 박정수위원, 부위원장 장현수위원, 간사 마혜란위원  
예/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주위원, 부위원장 오유미위원, 간사 백윤미위원**

**<의사 3. 2018학년도 유치원안전계획,검토 및 자문>**

- 간사: 이번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2018학년도 안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검토할 페이지수가 많은 관계로 사전에 홈페이지 운영위자료실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혹시 검토하셨는지요?
- ○○○위원: 살펴보았습니다.
- ○○○위원: 자료 인쇄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정, 보완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된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예방 뿐 아니라, 또래 간 주의할 사항, 몸에 대한 제대로 된 명칭사용 등을 지도하고 있어요. 또한 가장 기초교육으로 [동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좋을 영상입니다.
- ○○○위원: 그렇군요.
- ○○○위원: 기사를 보니, 성교육을 할 때 남자는 남자강사가, 여자는 여자강사가 지도하는 게 있던데, 구분해서 제대로 지도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그러고 보니, 남자강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아들 알려주면 더 편하고 좋 듯, 그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강사에 대한 부분도 지역청이나 진흥원에 건의해 봐야겠네요.
- ○○○위원: 요즘 안전체험관이 있던데, 된다면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단체로 견학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장: 네. 그래서 홈페이지 학부모자료실에 송파안전체험관 등 안전체험관에 대한 자료를 올렸 어요. 단체견학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요.
- 간사: 몇 년 전에 단체로 이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한 3개있는 체험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에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오후 시간대로 한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 시간도 맞지가 않구요. 그래도 된다면 견학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 이것은 제가 겪었던 거라, 유치원에서 외부견학 시 견학지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지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충무아트홀 건강체험관을 다녀와 또 가고 싶어 해서 개인적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성교육부분에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은 아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장난으로 성기를 만지면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식의 겁을 주는 강한 표현들을 하라구요.
- 간사: 우리원에서도 매년 건강체험관을 이용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평가나 보고는 못 받았는 데, 혹시 교원위원님들 그런 지도를 보셨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 ○○○위원: 저도 어떤 영역인지 알겠어요. 물론 지도강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활동 시 신경 써서 봐야 겠네요.
- 원장: 견학 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2018 학교안전계획을 이와 같이 실행함에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전체: 네. 동의합니다. \* **2018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전원동의**

**<의사 4. 2018학년도 예산서 자문>**

- 간사: 이번에는 2018학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가 되어있고,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원장: 여기 항목별 용어가 다소 어려우실 것 같아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는 크게 관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운영비에는 공통운영비: 소모품, 검사비, 용역비, 렌탈비, 차량사용료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공과비, 보험료 / 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직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 경조사비가 포함됩니다.

○ 원장: 그리고 일반교육활동비에는 교사연수비, 교재교구구입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약품구입 등의 복리비, 급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특활에 대한 강사, 교재 부분 등이 들어갑니다. 시설설비비는 작년에는 놀이터 바닥재 보완공사가 있었고, 올해에는 건물 옆 비상대피로 벽면 타일이 노후 되어 유아들 안전을 위해 5월 화재대피훈련 전에 공사를 할 계획이라 배정하였습니다.

○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 원장: 네. 원아수가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간사: 딱히 저희만 그런 건 아니라, 공립이며 주변유치원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중구는 서울에서도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인건비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왜 감소가 된 거죠?

○ 원장: 올해 교사들의 변동이 좀 있었지요. 교사들 경력에 따른 급여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일반을 포함해 연령별로 모든 선임교사들이 1급 정교사입니다. 보통 6~7년 이상의 경력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교사의 균형, 유치원 교육의 연계 등을 위해 신규교사들은 경력이 다소 적습니다.

○ 간사: 예산서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의견 없으신가요?

그럼 2018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 전체: 네. 동의합니다. \*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2018학년도 예산서 집행 동의

○ 간사: 이상으로 오늘 나눠야 할 의사들은 모두 나누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나눠야 할 의견이 있으신지요?

○ ○○○위원: 공기청정기가 교실 외에 강당이나 다른 활동실에도 있나요?

○ 원장: 일단 교실마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크기가 있다 보니, 대형용량의 청정기가 대당 6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설치하기엔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후 강당이나 도서관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전과 관련하여 CCTV에 대한 설치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입법화되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아직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기관을 보면 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예방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고확인용으로 활용되죠. 교사들에 대한 믿음의 문제, 의심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저는 그런 교사들과 일하고 싶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차라리 아이들 교육, 교재, 시설에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교원위원들도 저와 5~7년 그 이상 일한 교사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들에 태도 등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위원: 그럼 전혀 설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 원장: 만약 입법화가 된다면 불법을 하면서까지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스킴존 때문에 설치한 CCTV가 유치원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기는 해요.

- ○○○위원: 혹시 키즈노트 아시나요? 바로바로 유치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앱에 대한 운영은 안하시나요?
- 간사: 우리원은 키즈노트를 위해 사진 찍고, 글 올리는 것 대신 그 시간에 다음날 수업준비와 아이들 교육, 관찰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 아이들 낮잠시간에 많이 올립니다. 사실 그러다 사고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형식적인 말들 채우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원 교사들은 핸드폰을 소지하지도 않고, 교육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매일 핸드폰 부여잡고 입력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건 어린이집이야기인데 실제로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을 찍다가 그 사이 아이 들이 부딪혀 여자아이 이마에 꽤 깊은 상처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사진 안 찍어도 되니, 아이들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장: 아이들 수업준비만으로도 정시에 퇴근하기도 어려운 선생님들입니다. 다만, 선생님들에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유아들 교육활동 사진, 전화나 메모 등에도 신경 써 주시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가끔은 홈페이지도 봐 주시고, 궁금하실 땐 전화도 주세요.
- 간사: 홈페이지 온라인문의로도 남겨주시면, 답 드립니다. 키즈노트 할 시간에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 우리반은 학부모OT때 만나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나 학부모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것 같습니다. SNS 등을 많이 활용하니, 단톡방 같은 것을 개설해 주시거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 원장: 유치원이 나서서 사적인 대화 자리나 단톡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톡방의 역기능도 상당합니다.
- ○○○위원: 저도 단톡방의 역기능, 순기능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끼리 또 만나서 놀게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 2년 넘게 재원 했는데, 아는 학부모님이 없다는 거 예요. 약수는 그런 면에서 학부모 교류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단톡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단톡방을 통해 몇몇 아이들끼리 밖에서 만나서 어울리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워킹맘이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 때문에 속상해 하는 아이를 보며 저도 힘들었어요.
- ○○○위원: 저도 단톡방이 있다면 하긴 하는데, 분명히 소외되는 학부모,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SNS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있어요.
- ○○○위원: 그래서 저는 할머니나 도우미분이 봐주시는 분들의 아이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연락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 ○○○위원: 그렇게라도 친구들 사이에 참여했다 해도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의 마음까지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 원장: 유치원과 관계된 일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나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학부모 카페를 이용하시면 대화나 글의 신중함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학부모님들 사이의 관계망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학부모OT때 인사 나누는 자리도 마련 했었구요.

- ○○○위원: 그런데 그날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요.
- 원장: 위원장님께서 학부모카페의 활성화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 **유아들이 재활용품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어 오는데, 다른 재료들 제공은 없는지, 가져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아닙니다. 여기 미술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미술재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양한 재료를 제시해도 크게 형태를 잡을 수 있고, 변형이 자유로운 재활용품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유선택활동시간 자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라 교사가 재료의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주제만 제시하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집에서 다양한 재활용품 있으면 가져오는 유아들도 있는 걸요.
-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제대로 씻은 건지, 써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서 주시나요?
- ○○○위원: 네. 교사들도 모아오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나오는 것들도 활용합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보내 주시구요.
- ○○○위원: 재활용품=쓰레기라는 관점보다는 작품으로 봐 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구성했는데, 점점 정교화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도 부모님의 반응이 염려될 때도 있지만, 아이마다 의미를 부여한 작품을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 ○○○위원: 통신문에 재활용 협조를 공지해 주시면, 자기 아이가 쓸 거니까 더 잘 챙겨서 좋은 것으로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 원장: 그러다보면 너무 많은 양은 원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 ○○○위원: 개수 제한을 두어서요.
- ○○○위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 **학년말에 작품파일**을 받고 놀랐어요.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한 것 같은데, 학년말에 파일이 나간다는 것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져오는 작품에 대한 불만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 ○○○위원: 가져가는 것만 학년말이지, 유치원 행사나, 면담 때 계속 파일은 보여드리고 있었 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죠?
- ○○○위원: 면담 때 예시로 볼 수도 있고, 참여 수업 때도 전시해 놓으시던데...
- ○○○위원: 그럼 작품파일이 학년말에 나간다고 예시를 학부모OT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미술작품파일도 따로 학년말에 오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재료라 그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 ○○○위원: 그건 특활 미술에서 따로 하는 작품입니다.
- ○○○위원: 미술강사가 따로 있나요? 담임교사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 원장: 저희는 특활은 다 강사가 하고 있는데, 그 점 공지가 부족했나 봅니다. 학부모 OT가 다소 길어질 수 있겠네요. 공지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서...

○ ○○○위원: 영어교재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저는 키즈브라운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원장: 사실 유아영어교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키즈브라운은 저희도 좋아서 3년 정도 진행했고, 그 전에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특성상 강사의 질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 업체는 강사수급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관과 맞는 강사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인 만큼 추후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상이학원 것도 유명하긴 한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원장: 사전에 키즈브라운을 3년 정도해서 변화를 주고 싶다 정도는 안내를 하였고, 정해진 것을 나중에 말씀드린 건 계속해서 강사들의 모의수업을 보고 있었어요.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참여수업 때 영어수업 오픈할데니, 추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장: 이번에 4세반 화분준비 때문에 부모님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 ○○○위원: 저도 아이를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들은 그게 맞는지, 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 원장: 그냥 집에 있는 꽃이나 작은 화분이 있으면, 함께 보거나 기르고 싶으면 허락받고 가져와도 된다고 언어 전달한 담임들도 많이 부담된 것 같더라고요.

가정통신문에 공지된 것은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고, 통신문에 없는데 아이가 집에 가서 전달하는 것은 언어전달, 자기 물건 챙기기 지도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챙겨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무방한 것이지요.

○ ○○○위원: 교육안이 나갈 때 협조자료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또한 챙겨주시면 아이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전체 다 챙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간사: 이런 언어전달이나, 자기 물건 챙기기가 서서히 자리 잡히면, 어머님들 아이들 초등학교 갔을 때 적응이나 준비물 챙기는 것에 대한 수고가 확실히 줄어드십니다.

아이가 얘기했을 때 있으시면 챙겨주시고, 없으면 또 아이한테 그럼, 니가 챙겨가고 싶은 것은 뭔지 스스로 찾아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화장실 수건 대신 종이타올 같은 건 고려 안 하시나요?

○ 원장: 저도 위생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타올을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부분, 환경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쓰레기 발생 부분, 종이타올의 미세먼지 발생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선뜻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에 여러분의 수건을 장에 넣어두고, 수시로 갈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뒤에는 물기를 손을 흔들어 털어버리게끔 지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위생적이라고는 합니다.

○ 원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그럼,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야 할 안건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건의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